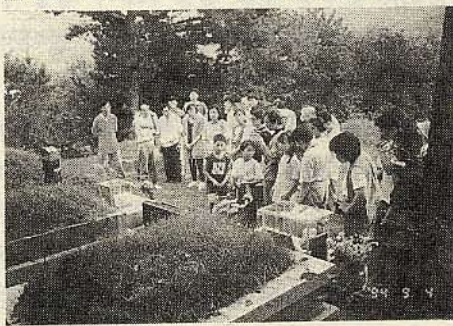




통권35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4. 10.16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94수련회가 지난 9월 3, 4일 대성리 남사당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진은 수련회 여는 마당, 작은 올림픽, 역사이야기, 마석 모란공원 참배를 찍은 것입니다.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시대의 지식인

편집부

인사동은 서울 거리 중에서 가장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그 골목에 옛 건국대 자리가 있고, 미로같은 복도를 따라가니 이구영 선생님께서 후학들과 만나는 이문학회(以文學會)가 있다. 웬지 학교 다닐 때 교수회관에 들어서면 느끼곤 했던 정적과 오래 묵은 책냄새가 나는 것 같다.

선생님께서서는 추사 김정희의 초서로 씌어진 책을 대학 교수들에게 강의하시고 논어, 소학, 일사유사(숨은 선비들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뵈분은 정년퇴직한 노교수님은 아니다. 젊은 날에는 독서회 사건 등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나 오기를 반복했던 운동가였고, '납파 공작원'으로 22년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던 장기수 선생님이다.

내가 하던 것 네가 또 하는구나!

이구영 선생님께서는 1920년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으로 유명한 충북 제천군 한수면 북노리에서 태어나셨다. '충청도 양반' 중에서도 완고하고 강직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열아홉 살까지는 한학만을 익혔다.

"아버지께서 신학은 왜놈들이 하는 거니까 일본놈들 글이나 가르치는 학교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본놈하고는 철천지수라고 해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지 10년이 지나서 태어난 선생님이지만 1930년대 후반까지 상투를 틀고 다녔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분기해서 의병운동을 벌인 아버님이 뒤에 계셨던 거다. 열여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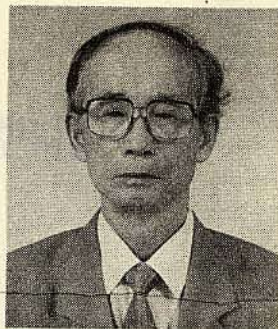
살에 두 살 위인 신부와 혼인한 이야기며 서울에 성묘하러 올라올 때에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차림이었다는 말씀에 우리가 웃으니 선생님께서 철제 캐비닛에 보관하고 계신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 주셨다. 흰 동정이 빛나는 검정 두루마기에 정자관을 쓴 젊은이가 노송 옆에서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고상한 기품이 엿보였다.

"산소를 돌보느라 서울에 왔는데 동서하고 여남은 명이 종로야시 구경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이발소에 면도하러 가니까 들어와 앉아 있으라고 그러더니 여럿이 달려들어 망건을 벗기고 하는 통에 머리를 깎기고 말았어요. 그때 하늘이 노래지고 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그랬지. 허허허."

석 달만에 돌아와서는 곧장 월악산 보덕암에 들어가 한학에 몰두하기로 했다.

이때 간이학교(일제 때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속성으로 가르치던 2년제 초등학교) 선생을 만난 것이 인생의 한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가 세계지도를 보여주고 다른 나라 이름을 가르쳐 주는 등 신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울 학교에 들어가는 절차를 가르쳐줘서 19세 때 처음으로 YMCA청년회 학교(뒤에 영창학교)에 입학하였다.

"명륜학교 생도였던 정준섭을 만나면서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남로당 김태준 선생의 제자로 내게 사회주의 책도 빌려주고, 씨클도 운영하였는데 나도 이때부터 독서회 사건으로 자주 경찰서에 붙들려 갔지요."



을미의병투쟁을 이끈 아버지

“선생님 아버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내가 하던 것 네가 또 하는구나 그러시더군요”

선생의 아버님께서 1895년 을미의병투쟁에 참여한 학자이시다. 퇴계의 이기이원론, 을곡의 이기일원론을 절충한 이단상의 학맥을 이어받은 이항로 - 유준교 - 유안석의 뒤를 이어 후학을 지도하던 중 동생과 함께 봉기하였다. 갑오년의 농민전쟁과는 달리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반외세, 국권회복의 기치를 내건 의병운동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대사의 한 장면이다. 을미년 11월에는 제천에 진을 치고 다음해 1월에는 탐관오리로 악명을 날리던 단양군수, 청풍 부사의 목을 베고 충주로 진격한다. 정예부대로 일본군 200명과 관군 400명에 맞서 충주를 점령하고 관찰사 김규식을 처단한다. 그러나 4월부터 쫓기기 시작해 제천으로 후퇴했고 남산싸움에서 크게 지는 바람에 만주까지 밀리게 된다. 중간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청나라는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킨다. 서간도땅(초산, 위헌중심)에 혁명 기지를 세우고 재기를 꿈꾸나 이루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다.

사라진 왕조의 마지막 선비상을 묘사한 다음의 글을 읽으며 선생님의 부친을 떠올렸다.

‘당신들의 성성한 백발은 우주에 대한 심원한 이해와 통찰을 감추고 있었으며 골 깊은 주름과 형형한 눈빛에는 생에 대한 참다운 예지가 가득 고여 있었다.

지켜야 할 것에 엄격하였고, 노해야 할 곳에 거침이 없으셨다. 한 번 노성을 발하시면 마른 하늘에는 벽력이 울렸으며 높지 않은 어깨에도 구름이 넘실거렸다.’

이문열 -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중에서 -

나라야 어찌되던 일신과 가문의 영달을 위해 변절을 거듭하고, 백성들이야 굶어죽든 말든 곳간의 빚장을 걸어잠그고 장리빚을 주는 탐욕의 상징이 양반인 줄 알았는데, 시대의 지성으로 불을 밝히고 양심을 지켜낸 참된 선비의 모습 또한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호서의병사적을 집필하다

그런데 이구영 선생님을 취재한 91년 7월호 「말」지를 넘기다가 <지적 선정주의를 파는 지식인 스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김귀정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분신정국’이 이어지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였다.

‘일단 스타가 된 지식인은 자신의 ‘언술행위’를 통해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지만 ‘책임없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제도적 권력보다 더 자유분방하고 또 그래서 막강할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회적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한 가지 비결은 지적 선정주의이다. 충격적인 발언을 자주 해야 상업 대중 매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았다. 1994년의

극성스런 무더위보다 더 징글징글했던 모씨의 행보에 대해 지적인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를 지식인이라 칭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죽는 날까지 죄 안짓고 사는 거예요. 지식인이 입으로 글로 저지르는 죄가 좀 큼니까?”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민중과 지식인>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던 생각이 난다.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부르기엔 뭔가 자격이 미달된 것 같아 동일시하지 못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식인이란 선생님과 선생의 부친 같은 분을 일컫는 말이며, 책임이 무거운 만큼 명예로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의병운동에 대한 책도 펴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이거지요. 호서의병사적. 내가 집을 떠나있고 형을 살다보니 집에 있던 유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중에 작은 아버지가 종군하면서 쓰신 글(종의록)을 동생이 감옥에 넣어줘서 내가 그걸 풀어 밖에 내보내는 식으로 연구를 했지요.”

해방후 조선 공산당재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분파의 어지러움을 목격하기도 했고 성시백선의 김승원을 도와 활동하기도 했던 선생님은 전쟁이 터지자 강제로 가게 되었다. 폐결핵에 걸려 병원에 있던 5년동안은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회복학교’의 교사로 지냈다. 퇴원후에는 강계근방의 도서관 책임자를 맡았다가 1958년 중앙당

연락부의 소환을 받고 남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일이 여의치 않아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중 부산의 여인숙에서 임검 나온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하필 그 경찰이 일제 때부터 경찰노릇을 하던 자라 선생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해로 해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첫날 만남이 실패했어요. 다음날을 기약하고 갈대밭에 숨어 있는데 모기때가 어찌나 많은지 그걸 참고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었지요. 혹 누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대변을 보아 놓고 핑계를 대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굳어지면 막대기로 헤집으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선생님께서서는 그리 말수가 많지 않으신 편이고, 게다가 힘들었던 시절은 ‘다 그렇지요’ 하며 구체적인 말솜은 안하셨는데 지나치듯 하신 이 말솜을 듣고 또다른 고초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曾子曰 君子는 以文會友 以友輔仁이라.

(학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보한다)

이문학회를 나서며 논어의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케케묵은 봉건시대의 잔영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는 지식인의 화두로, 시대를 초월해서 삶의 태도를 다잡는 가르침으로.

학문 · 사상 ·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그 열쇠이다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때 헌법제정의회가 심의 채택한 '사람 및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내용이다.

구체제를 뒤엎고 근대적 시민권을 쟁취하기까지엔 절대주의 봉건권력과 피나는 싸움과 함께 끊임없이 낡은 것으로부터 새 것을 찾기 위해 사상학문에서도 혁명적 이론창출에 힘써왔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힘든 싸움으로 얻은 자유 평등 인권 등이 21세기를 내다보는 오늘날 이땅에서는 시대역행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며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가 공안 잣대로 재단되어 사법처리의 으뜸장과 함께 작가, 출판인, 교육자, 예술활동가들이 구속 구인 수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할 필요없이 학문 사상 표현은 자유이고, 그 내용과 반향은 비판과 반비판의 그들 스스로의 자율기능에 맡겨져야 한다. 다원사회에서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 신앙 양심 삶의 목표들은 각자 겪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고 반영일 뿐이다. 한 가지 색깔로 재단하거나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8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온 축적물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연구방법이 다르다 해서 제재된다면 학문연구의 자유는 빈말일 수밖에 없고, 탈냉전시대를 맞아 특히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를 발효시켜 놓았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터에 이적성을 따진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사상탄압이 자행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제의 폭압적 공안 유제가 청산되지 못한일과 외세와 분단을 겪으며 반공 반복이데올로기가 지배수단으로 작용해 왔고 30여년 군사문화 통치가 그것들이다.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4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 김선명 노인이 바로 그 산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사상전향제도 폐지하고 장기복역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라고.

이 목소리는 창신동에서만 외쳐서는 안된다. 인간이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는 비록 자신이 직접 침해받지 않았다 해도 자기 일로 받아들여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 학문 예술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에 맞춰 공대위를 꾸리는 일에만 멈추지 말고 반세기를 옥담안에 묶여 있는 우리와 같은 보통인간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당국 스스로도 뒤늦게 그 잘못을 깨닫고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었었다 (물론 보안관찰법이라는 대체입법으로 사상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처분되는 위헌성이 문제되기도 했지만 생각 차이를 벌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60여명이 감호소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적용대상자에 같은 처분이 있어야 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20년 30년 44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 비전향 장기수도 바로 석방되어야 한다. 꽃같은 청춘이 0.75평 독방에서 백발의 노인이 되도록 가뒀다는 반인륜적 반문명적 처사는 바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뒀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이들까지 피해 입힐 수는 없습니다

편 집 부

“오래 기다리셨지요”

“아닙니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조금은 흐린 날씨가 지난 여름의 폭염을 믿기지 않게 했던 토요일 오후, 민가협 사무실에서 박근홍씨(48세)를 만났다. 건장한 체격과 차분한 말씨가 인상적이었는데 소박하면서도 어둡지 않은 미소에, 지난 세월 그분이 겪은 고초를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가족애기 부터 하는 게 쉽겠네요. 우리 고향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제가 함께 살았지요. 부친은 해방전에도 항일운동에 가담하며 계속 수배 생활을 하다가 해방후에는 좌익활동으로 형무소 생활을 하셨던 분이지요. 6.25가 난 후에는 서울 구로동으로 와서 지냈어요. 그때 어머니는 만삭의 몸이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기다리지 말라시며 훌쩍 떠나셨답니다. 어머니는 그후 저와 형을 데리고 다시 고향 친척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습니다”. 형인 박동운씨는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고향 진도의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박근홍씨는 수원 전매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낡은 앨범속의 모습 뿐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는 가운데 소박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광주 항쟁의 무차별 진압의 여파가 더해가던 81년 3월 7일, 갑자기 전 일가족이 불법 연행되었다

“새벽 6시경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니, 정체 불명의 남자 2명이 다짜고짜

나를 밀치고 방을 뒤흔드는 거예요. 누구나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물어도 대답도 않고 장농, 이불 속을 뒤지더니 ‘조사해 볼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 며 강제로 집밖에 있는 승용차에 태웁니다. 그땐 점퍼로 얼굴을 가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요”

도착한 곳은 남산의 안기부 지하 취조실이었다고 한다. 박근홍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 땀이 난다고 한다. 칙칙한 불빛아래 복도를 걸으며 지나쳤던 그 수많은 방들 속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1차로 연행된 가족들은 형 박동운씨와 박근홍씨 어머니, 고모부, 숙부들이었다. 그곳에서 가족들은 제각기 취조를 받고, 상상도 못할 가혹 행위를 받았다고 한다. 연행된 이유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강요된 것은 6.25때 행방불명된 부친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자백이었다.

“생사조차 확인 안되는 아버지와 간첩행위를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들은 네 아비가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말을 다했다. 언제 네 아비를 만났고 언제 함께 월북했는지 그간의 간첩행위를 말하라’고 하면서 정말 살인적인 고문을 해댔어요 이미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별의 별 방법으로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정말 죽는게 낫겠다 싶었어요,

잠도 못자고 계속 고문을 받으니까 나중엔 아무런 판단도 느낌도 없더라구요. 결국 그들이 불러주는대로 원하는대로 자술서를 썼습니다.” 안

기부로 연행된지 60여일 만에 박근홍씨 가족들은 '진도 고정간첩단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다. 안기부는 '박동운은 한국전쟁당시 행방불명된 부친 박영준을 만나 두차례에 걸쳐 월북하였고 일가족을 포섭하여 간첩활동을 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낸 증거품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자술서 뿐이었다. 궁리끝에 만들어낸 증거품은 증거품을 파손시킬 때 썼다고 둘러댄 망치자루와 북의 지령을 받을 당시 썼던 라디오 하나인데 그나마 그 라디오는 잡음이 심한 고장난 것이었다고 한다. 망치 자루 하나와 고장난 라디오 하나로 간첩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자술서를 쓴 뒤로는 구치소로 이송되었는데 재판을 받을 당시엔 다시 정신이 들었지요. 재판정에서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더군요. 취재하는 기자들은 없고 방청인들도 가족외에는 들어 보내지 않았고 안기부 직원들만 잔뜩 버티고 서 있었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한 재판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발표된 형 박동운씨는 지금까지 14년 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박동운씨의 어머니 이수례씨는 징역 4년, 숙부 박경운씨는 징역 7년, 동생 박근홍씨는 3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으며, 고모부 허현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5세대가 모두 간첩으로 연루되어 복역해 왔다.

"저는 84년 말에 출소했습니다. 몸은 비록 감

옥에서 벗어났다고는해도 늘 감시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지요. 사사건건

간섭하며 무척이나 괴롭히더군요. 일가족이 전부 징역을 살았고 가까운 친척에게도 잔뜩 협박을 해 놓아서 우리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도 다시 기반을 잡기 시작했고 87년 6월항쟁 직전부터 청원(?)활동을 시작했지요"

박근홍씨가 내미는 꽤나 두툼한 보고서. 표지에는 '군사독재 정권하의 안기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의 전모'라 쓰인 정갈한 글씨가 보였다. 그 당시의 모든 자료를 가능한한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로 각 정당, 인권단체등 조금의 관련만 있다고 하면 그 보고서를 돌렸다고 한다. 1000여부가 넘는 보고서를 돌리고도 별 소식이 없으므로 박근홍씨는 사건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부친의 생사 확인을 위해 93년 4월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제 3국을 통한 접촉을 허가 받았지만 부친의 행적에 대한 요구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허가서를 받아낸 얼마후 다시 통일원에서 연락이 왔지요. 절대 실정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등 여러 규정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허가서를 내준것을 안기부에서 알고와서는 한바탕 했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고



▲하나 남아있는 결혼식 날의 박동운 선생님 사진

재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는게 불편한게 아니겠어요?”

형인 박동운씨는 광주교도소에서 계속 복역하다가 얼마전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한다. 청원서를 쓰기위해 집필허가를 얻으려 하다 빚은 마찰 때문이라고 한다. 어머니와 형수는 진도에서 생활하시고 박근홍씨는 현재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며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 희망이 없네요. 좋은 시절 그 속에서 다 보낸 형이나 저나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웬지 해가 갈수록 더 암울하게만 느껴져요. 국보법 재심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다른 확실한 증거없이 그당시 기록 만으로 안돼요. 빨리 복판과 서신왕래라도 이뤄지면 상황이 달라지겠는데 말입니다”

박근홍씨는 자신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지하 취조실의 수많은 방을 생각하면, 자신과 같이 집권유지의 희생양으로 피해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 사람들이 깊은 상처만 안은채 그냥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패륜적인 5공화국의 탄생과 그에 항거했던 광주 민주항쟁, 그 항쟁을 무참히 진압하고 그 모든 책임을 '간첩이 배후 조종했다'는 한마디로 돌려 버린 후 망치 한자루와 라디오 한대로 하가 가족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버린 그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무모함, 그 반 민주성. 정권 유지에 눈

먼 공권력의 횡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안고 아낀 것은 아니다. 라고 진실은 진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의 큰 용기가 있기에 우리 사회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까지 힘든 일들이 많았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는나는 우문에 박근홍씨의 현답은 명쾌했다.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좌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처럼 거짓 사건에 휘말리게해서 라도 연좌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내 기록으로 피해 당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고문에 의해 조작시킨 사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장기간의 고문은 그 인간성까지 파멸시키고 영원한 불치의 병으로 한평생을 안고 살아가고 정신 까지 분열되어 그 피해는 가족과 이웃 까지 슬픔을 안겨 줍니다. 한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만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홍씨의 보고서에 있는 글이다.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전근대적 사고와 행패가 아직도 남아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박동운씨 사건의 진실이 빨리 밝혀져 억울한 죄가 벗겨지길 바랄 뿐이었다.

생명의 비가 내립니다

원 중 수 (학생, 23)

우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는 가나봅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겠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도 들었고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분노도 많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민정부라는 허울 아래에서 만들어진 공안분위기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에 수많은 못질을 해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학원을 침탈하고,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유례 없이 소설에, 영화에, 그리고 이제는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생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비에는 두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 즉 소멸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 즉 창조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는 나에게 조그만 아픔과 커다란 희망을 살며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자기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막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나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진실을 추구하는 나와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는 자신이 심하게 뒤엉키곤 했습니다. 그것은 보호막을 걷어내고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처럼 보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러한 나 자신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9월 3,4일 대성리 남사당에서 있었던 양심수후원회의 수련회였습니다.

항상 학원에서만 생활하고, 같은 사람들과 지내왔던 나에게 이번 수련회는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것은 구성원이 모두 비슷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놀이방식과 생활방식이 획일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심수 후원회의 수련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80대의 나이 지긋하신 분들까지 연령층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공간도 학원에서부터 회사, 병원, 노동현장까지 다양했습니다. 놀이방식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젊은이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대동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며 나약하게 생활해온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하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자신이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주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혹시 주사파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다보니 단어하나 쓰는 것도 조심스럽네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 말이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에 토론을 할 때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방관자적 위치에 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회자를 정하고

그는 발언자를 지적하고, 지적당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우스갯소리로 마치고, 이런 것에 조금은 익숙해진 나에게 수련회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은 한 마디로 말해 부러웠습니다. 어떤 주제가 제시되었을 때 자신들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말했고, 그런만큼 회의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이었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주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성리로 향하는 버스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혹시나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양심수 후원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등등... 걱정스러웠던 것은 장기수 선생님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길게는 30년, 40년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었고 더구나 사상과 관련된 분들이었기에 조금 두렵기도 했구요. 하지만 막상 그 분들을 만나고 생활을 해보니 마치 친할아버지와 같이 인정받고 자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이야기도 해보지 않은 나를 친손자처럼 자연스럽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차 속에서의 생각이 일정정도 그릇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후원회사람들과도 거의 벽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막내라고 귀여워 해주시는 모습, 잘 부르지

도 못하는 노래를 듣고 너무나 잘 불러 까무러칠 뻔했다고 격려해 주신 분들, 정말 선배님들과 벽도 없었고 난 결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서성거렸습니다. 4시 19분 열차가 떠나가고 나는 혼자서라도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곳에 갔던 것이 정말 잘한 것이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의 나라는 이 삭이 뿌리를 내릴 토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갈등도 줄어들었고 현실에 충실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인식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수후원회를 꾸리려 하였을 때의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수련회가 나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순수하신 분들을 반평생이 넘는 세월 동안 옥에서 보내게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출소하신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는 지금도 소리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은 소리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결코 그래선 안되겠지요. 이 비는 차가운 바닥을 녹이고 창살을 녹이고 분단의 철책을 녹이는 생명의 비이어야 되겠지요. 통일의 새벽을 소리없이 알리는 비이어야만 되겠지요.

낙성대 이야기

조명희(주부, 38)

수유리와 낙성대의 선생님들이 만남의 집으로 옮기실 때 내 나름대로 마음에 조심스런 다짐을 했었다. 가끔씩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집에 일이 있어서 등등...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로 늘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가까이 오지게 된 것이다. 후원회 주부 회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곤 했는데, 그제야 할 일을 찾아낸 것 같아 내심 다행이다 싶었다. 가끔씩 찾아 뵙고 말동무도 돼 드리고 음식 솜씨는 별로 없지만 정성들여 음식도 만들어 드려야지. 이런 저런 기대감 속에 한 두 번쯤 다녀온 후일 것이다. 갑작스런 화재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

전화로 자세한 소식은 듣지 못하고 왜 불이 났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놀라셨고 또 집은 얼마나 타 버렸을까?... 확실히 않은 온갖 추측을 안고 낙성대에 도착했을 땐 그냥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한껏 어두워진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저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2층의 그 참혹한 화재 현장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고, 모처럼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싶어 내심 좋아했었는데, 그 정도의 편안함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싶고 그런 현실이 서글펐다.

그 긴 옥살이 끝에 환갑을 훨씬 넘긴 연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손수 밥을 지어드셔야 하는 게 늘 가위눌림 같은 부담스러움

이었는데...

발걸음을 되돌리면서도 이런 저런 궁금함 때문에 막막할 뿐이었다. 한달쯤 지난 후 다시 들렀을 땐 회원들의 정성과 수고 덕분에 불쌍 사나웠던 불에 탄 잔재들이 다 치워지고, 타다만 페인트 벽을 벗겨 내야하는데 방독면이 필요하더니, 어떤 자재를 써야하느냐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활기차 보였고, 여기 저기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과 부산스러움이 좋아보였다.

해외 여행이니 뭐니 하며 여름 방학을 한껏 즐기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도 무덤덤한 여름날을 마다않고 땀 흘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 저런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어 그래도 세상살이에 희망을 걸어 보자고 혼자 호뭇해하고, 우리도 질세라 소수영 언니와 쏟아지는 땀을 외면해 가며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준비하면, 탐스럽지 않은 밥상인데도 맛나게 먹어주는 마음이 고마워 피곤도 모르고 신나하고... 멀리 남도에서 올라온 이쁘디 이쁜 지우와 정담도 나누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함박 웃으며 얼굴도 익히고, 집수리를 하는데 작은 뭉이라도 한다는 게 스스로 대견스럽고, 여름 휴가가 겹쳐 마음처럼 자주 찾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들를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조창순 선생님의 건강만 빼고(사실 아직도 무척

걱정스런 부분이긴 하지만) 2층 도배가 끝난 후에는 그 흐뭇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모두들 그렇게도 정성을 쏟고 애를 쓰더니 이렇게 깨끗하고 환한 집이 되었구나! 단장된 2층을 둘러 보며 “생각해 보니 차라리 불이 잘 난 것 같다.”는 누군가의 부담없는 농담까지도 밟지 않았으니까.

긴 공사기간 때문에 많이 지치셨지만 대강 마무리가 되어가자 조금은 밝아진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마음 놓고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이른 초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민가협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랫층 도배까지 마친 날은 신바람이 절로 났고 그날 따라 혼자서 동분서주 수고한 이정태 회원의 넉넉함이 다른 때보다 훨씬 돋보였다. 보기 드물게 하

루에 2번 켜거나 출근(?)하게 된 나는 아주 기분 좋게 저녁상을 준비하고(사실은 그날 낮에 소수영 언니와 음식을 대충 준비해 놓았었음) 제법 넉넉해 보이는 상 앞에 빙 둘러앉아 권회장님을 비롯해 선생님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난 기분이란... 그 행복한 만족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뿌듯함. 주름진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 피어난 환한 미소가 그동안 수고해 준 회원들의 피곤함을 어루만지고도 남음직했다. 일 주일 넘게 만남의 집 안주인(?) 노릇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해낸 지우에게 고맙고, 나를 만남의 집과 인연을 맺게 해 주고 공사기간 중에 나와 함께 아주 열심히 ‘멋진 파출부’(?) 역할을 해 준 소수영 언니에게 깊은 애정을 보낸다.

낙성대 집들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낙성대 만남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어려움도 많았으나 무사히 공사도 마쳤기에, 늦었지만 넉넉한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작은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쪼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994년 9월 24일 (토) 오후 3시~6시
- 장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T. 877-6687)



스무살 동생을 몰아맨 국가보안법

김 용 민 (김용우씨의 형)

저는 지난 9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용우란 학생의 형으로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동생은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청앞에서 고교 동창생 및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샘”이라는 이름의 놀이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 동아리는 고교생 및 청소년들에게 사물놀이, 기타, 태권등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 가정에서의 힘들고 고단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려움들을 풀어내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경 서울시 경찰청 보안2과 소속 경찰관들이 “샘” 사무실에 들이닥쳐 고교생 1명을 포함한 학생 10명을 무차별 연행해 갔습니다. 한 고교생 연행 사유는 음반으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노래의 가사가 노트에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습고 황당스러운 노릇입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체포하여 학생들을 연행해 간 곳은 종로구 옥인동 소재 옥인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옥인 대공분실에 학생들이 연행되어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와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한 학생의 부모님에게 경찰관이 주고 간 소속과 이름이 적힌 쪽지를 가지고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 그런 직위와 이름을 가진 경찰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알아본 결과 장안

동 소재 대공분실과 옥인동 대공분실에 가보라는 연락을 받아 차례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대공분실에서는 무거운 철 대문 뒤로 “그런 학생들 없다”는 냉담한 대답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암담한 마음을 안고 옥인 대공분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내 동생, 내 자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버스안에서의 한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조이며 이틀동안 찾아 헤메다가 만난 동생의 모습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초췌하고 잠을 못자 눈이 벌건 동생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틀, 동생들이 자식들이 밥을 먹는지 못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시간동안 저와 다른 부모님들은 물 한모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연행되어 갔던 10명 중 7명은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을 포함한 3명의 학생들은 경찰서에 각각 구속 수감되어있습니다. 면회때 동생은 2일 연행된 후 3일 오전까지 전혀 잠을 못자게 한 채로 조사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방식도 어떤 책을 들이대며 “이 책으로 공부했다고 적어라”든지 책내용의 일부를 읽어주며 받아 적게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강요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92년 7월 창립되어 고등학생들과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함양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동생을 비롯한 “샘” 회원들의 구속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법정신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8.1 - 낙성대 집수리 : 알루미늄 새시 문틀 넣기, 천정작업, 보일러 시설 자재반입. 회원 광인열전팀과 임사민님이 애써주심
- 8.2 - 조창손 선생님 병실 옮기심(303호), 병세 차도 없음
- 집수리 : 미장 벽바르기, 목공 계단공사, 시멘트, 목재 등 반입
- 낙성대 선생님들 수리비로 귀중한 성금 주심
- 대검 공안부 7대 교양교재를 이적성 내사중이라고 밝힘
- 8.3 - 집수리 : 거실 바닥 정리, 스티로폴 깔다. 알루미늄 새시 유리 넣기, 창문틀 페이퍼 다듬기, 불에 그을린 벽돌 닦기. 이정태, 김태훈, 조용해 회원이 자원봉사로 애써주심
- 조창손 선생님 병원 밥 처음 드심
- 8.4 - 집수리 : 방바닥 스티로폴, 계단 버팀대, 석유 보일러 철거, 가스보일러 2대 반입. 회원 소수영님과 그 어머니가 도와주심
- 서울 경찰청, “김일성주의청년동맹” 결성혐의로 차현민씨등 8명을 구속하고 10명 수배발표
- 8.5 - 집수리 : 방, 거실, 시멘트 바르기. 자원봉사로 김태훈, 조용해, 소수영님이 애써주심
- 국사립대 교수 협의회, 민교협, 민변 등 7개 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대위” 구성하기로 함
- 8.6 - 법무부 8.15 가석방 대상에서 시국 공안 사범 제외시킨다고 발표. 민가협 반박 성명 발표
- 8.7 - 집수리 : 문틀, 계단 기둥 등 페인트, 쓰레기 치움. 자원봉사로 고미애, 황양미, 신연하, 이정태, 이원호, 신상영, 나은희님이 애써주심
- 말지 객원 기자 임수경씨 취재차 낙성대 집 방문
- 8.8 - 집수리 : 문틀, 계단, 벽면 칠하기, 대문 용접
- 민가협 운영위원회.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 워크샵, 낙성대 화재, 민가협 수련회, 범민족대회 등 안전토의
- 8.9 - 집수리 : 도배, 장판, 벽, 철망 칠하기. 자원봉사로 광인열전이 애써 주심
- 후원회 운영위원회. 여름 수련회, 만남의 집 수리 등 논의
- 이종 선생님 84회 생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 조창손 선생님 퇴원하심
- 여러 선생님들 집수리 성금 보내주심. 고맙습니다.
- 서울 경찰청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장 이창복, 집행위원장 황인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함
- 8.10 - 집수리 : 기와정리, 칠하기. 자원봉사로 이정태, 채민경님이 애써주심

- 8.11
- 민가협, 민변 등 9개 인권단체 주체로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기독교회관에서 가짐
 - 서울 경찰청, 범추본, 전국연합, 민족회의 등 사무실 압수수색.
 - 범추본 65개 단체 대표자 회의- 범민족대회 강행하기로 결의
- 8.12
- 집수리 : 전기공사, 전구달기. 자원봉사로 소수영, 조명희, 김영민, 김예슬님이 애써주심
 - 8월 산행 과천 동물원 견학으로 대체함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 8.13
- 집수리 : 문달기, 문손잡이 달기, 칠하기. 자원봉사로 김미정, 김희선님이 애써주심
 - 전 사회당 위원장 김철 선생님 문상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 및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노회 주관 회년 예배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서예전에 축전 보냄
 - 범민족 대회 참석 예정 대학생 79명을 불법연행함
 - 집수리 : 도시가스 파이프 공사
 - 한청협 전의장 이범영 빈소 문상
 - 북미 3단계 회담. 상대 수도에 외교 대표부 설치 등 합의문 발표
- 8.14
- 제5차 범민족대회 경찰의 원천봉사 뚫고 서울대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경찰 최루탄 쏘며 학교안으로 들어와 방해했으나 대회는 강행되었음. 수많은 학생 부상 당함
- 8.15
- 범민족대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 결의문 채택. 범민족회의 보고대회 및 폐막식 가짐. 경찰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야만 행위 저지름
 - 양심수를 염려하는 선생님과 서울대 동문이 성금 120만원 보내주심 고맙습니다.
- 8.16
- 가극 “금강”, 여러 선생님들과 민가협 회원들 함께 관람함
- 8.17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 3년 만기 출소함.
 - 집수리 : 도시가스 연결 공사, 사진찍음.
 -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 여름수련회, 산행, 집수리 봉사 등에 대해 의논함
 - 경찰, 범민족대회 참가학생 28명 구속함
- 8.18
- 정순덕 여사 구토와 복통으로 신촌 김내과에서 치료 받으심
 - 민가협 목요집회
- 8.19
- 집수리 : 벽돌담기, 문고치기, 마당정리, 유리 닦기, 창고정리, 쓰레기 치우기

- 8.20 - 집수리 : 보일러 굴뚝 설치, 보일러 가동 시킴, 2층 수리 모두 마침
- 서대문 경찰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과 관련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회건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 8.21 - 양심수후원회 8월 산행. 36명 참가. 서울대공원 동물원 관람
- 8.22 - 민가협 여름 수련회- 충북 보은군 산외면 소재 동양일보 수련장에서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진주에서 온 전국 민가협 회원들이 새로운 다짐속에 몸과 마음을 닦는 1박2일 수련에 들어감. 개막식, 조별 활동, 식사, 강의, 대동놀이로 이어짐
- 8.23 - 수련회 이틀째- 아침체조, 식사, 정리, 청소, 속리산, 법주사 다녀봄. 지방 민가협 회원들과 아쉬운 작별.
- 8.25 - 서강대 박홍 총장 63빌딩 여의도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또 횡설수설함. 민가협 어머니들 토론장에서 강제 퇴장당하고 이 과정에서 전경희 어머니 크게 다쳐 2주 치료 진단 받음.
- 민가협 목요집회
- 서울대생 6명 자원봉사 왔으나(마당 풀 뽑기), 비가 와서 이야기 나누고 가다. (박석현 외 5명)
- 4월혁명연구소 월례토론회 “학문 사상의 자유”
- 8.26 - 안기부, 사회민주주의청년동맹 의장 홍승문 씨 등 간부 5명 이적단체 구성 (국보법) 혐의로 구속함
- 8.27 - 일본 그리스도 우회 동경 월회에서 성금을 보내주심. 고맙습니다.
- 8.28 - 충북 음성 “꽃동네” 유한옥 선생님 찾아뵙. 건강은 좋은 편이었으나, 빨리 서울로 오고싶다고 말씀하심.
- 8.29 -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김영삼 정부와 학문 사상의 자유” 토론회에 민가협 회원들 함께함.
- 8.30 - 출소 장기수 지원금 드림.
- 경상대 교수 6명 경찰에 구인.
-장상환, 정진상 교수 영장 청구
- 8.31 - 양심수후원회 4,5,6,7월간의 회계 및 사업에 대한 감사받음
- 장기복역 양심수 111명에게 영치금 발송함
- 경상대 교수 2명 영장 기각됨.

낙성대 만남의 집 집수리 보고서

■ 공별지출내역

1994. 7. 23부터
9. 7 까지

	공 별	금 액	비 고
1	식대, 쓰레기, 교통비, 비품, 기타	583,660	일꾼식대 (아침, 점심, 간식 해주거나 사주었음), 정화조 청소, 쓰레기통.
2	노임 ①	1,600,000	공사 총 감리 이종후 부장 20일 출력.
3	노임 ②	700,000	직영인부(나래) 10일
4	자재대	4,048,190	수리하는데 쓰인 자재 모두(전기, 도배, 알루미늄, 유리등 제외)
5	목수 노임	1,050,000	목수 14명.
6	미장 노임 ③	220,000	미장 3명.
7	전기 도급(재료포함)	700,000	재료포함도급(2층 모두, 1층 일부)
8	알루미늄 샷시 및 유리(도급)	900,000	도급
9	도배(재료일부포함)	470,000	2층 도급 410,000 1층 직영 60,000 (도배지 별도)
10	문짝 도급	800,000	도급
11	도시가스	1,200,000	도급
12	노임 ④ 보일러공	580,000	노임 10명
	합 계	12,851,850	

■ 집수리 기간 출력현황

1994. 7. 23부터
9. 2 까지

월 일	7/																				8/																				합 계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나래건설 공사총감리	1	1	1	1	1	1	1	0.5	0.5	1	1	1	1	1	0.7		1	1	1	1	1	1						1			22										
자원봉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95											
전 기			0.5	2																3											5										
목 수				2	2	2	2			2	2	1	1																		14										
나래건설 ****										1	1	1	1	0.7		1	1	1	1		1										11										
알루미늄샷시									0.5	2		0.5	2															0.5	1		5										
미 장										2																					1										
보일러													0.7	3	3													2	2		10										
도배·장판																	2												1		3										
도시가스																						3				3					6										
합 계	8	10	3	3	17	15	9	1	1	8	6	8	9	8		9	2	11	4	8	4	4				5	1	12	2	4	172										

국가보안법 위반

최도영 오형관 (김청동) 박영호(청주민청 회장)
안기백 문정우 이영규(이상 전남대) 오현주(하이
텔 통신, 김주석조문) 이창복 황인성(전국연합) 이
태주(대전총련 의장) 이정익 김정미 양태조(주사
연구회) 강호길(충청총련 의장) 손수영(순천대 총
학생회장) 이희진(가서원 대표) 이윤정(광주시의회
의원) 최인기 김영호 정승희 홍승문 방진옥 최
창우 권오창 최형록 이정아(사민청) 이화춘(민정
련) 염경배 임규섭(울산대-조문관련) 이미연(새날
열기) 송영현(살림터 대표)

범민족대회 관련

선세규(전국대) 김근모(인제대) 허현준 백준선 우
호석 김덕수 전종현 박영란(전북대) 김성민 박기
엽(경성대) 김현철 이준형(광주대) 안화순(기전여
전) 정동진(부산공업대) 조창래 조용완 손창현(부
산대) 박태남(부산여대) 김태현 윤재호(부산외대)
최한석 유경민(울산대) 김용운 송정훈 김선기 김
현철 강홍석(원광대) 이재열 이호상 문혁(전남대)
이종순(전주대) 정석창 이한섭(동명전문대)

노조 파업관련

장영열 김옥진 신남호 배현수 최명선 노일성 정
광채 이진선 조래춘 신호식 이종민 신복섭(금호
타이어 파업)

그외-집시법 위반

나운채(조선대) 목용삼(순천대) 정연철(고대 프락
치 사건) 채성석(전남대) 김유승 조동주 박병하
김대우(목포대) 김정교 주재완 이석훈 양동학(순
천대) 박규장(조선대-병역법)

새희원을 환영합니다

김미정(전남 신안군) 한미란(송파구 풍납동) 원종
수(중앙대) 최수자(경기도 시흥시) 김동욱(도봉구
방학동) 전태일(청계파복노조) 임근태 정성기(안
양시 석수동)

● 94 양심수후원회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3,4일 대성리 남사당에서 여름수련회
가 있었습니다.

약 70여명의 남녀노소 회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무더기(?)로 참석해 주신 회원
들도 계셨고, 멀리 광주에서 달려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착 후, 수련회를 여는 화려한(?) 개막식을 갖
고, 저녁을 맛나게 먹은 후, 조별 모임을 가졌
고,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이화 선생으로부터
“근현대 백년 반외세 운동의 흐름”에 대한 강연
을 들었습니다. 뒤이어 한양대 여든 여덟 풍물
팀의 신나는 길놀이와 함께 대동놀이가 진행되
었으며, 모두가 하나되는 흥겨운 여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이정태 회원의 무술(?)체조로 아침
을 열었고, 신나는 땀송이제 “작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점심을 먹은 후 아쉬운 수
련회를 마치며 폐막식을 갖고, 마석 모란공원에
들러 참배를 한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길 기
약하겠습니다.

● 제기동 탕제원에 계셨던 이세균 선생님과 봉
천동 만남의 집에 계셨던 김석형 김중종 선생
님이 9월 10일과 11일에 관악구 봉천6동으로 이
사하셨습니다.

국사봉 아래 매우 전망좋은 집입니다. 새로 마
련한 집에 평화와 건강이 늘 함께 하길 빕니다.

‘만남의 집’ 수리에 여러분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김선생님	1,000,000
만남의 집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2,780,000
양심수를 염려하는 박선생님	1,000,000
서울대 81학번 여러분	200,000
재독한인교회 토요일기도회	505,110
구자호선생님	500,000

* 9월7일 현재 7,371,850원 빚을지고 있습니다.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① ① ① - ⑤ ④ ②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